답을 찾지 말고 문제를 버리자

(아모스 5:1~27)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 벧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벧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벧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7.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8.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답을 찾지 말고 문제를 버리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답을 찾지 말고 문제를 버리자'
신학교 때에 같이 입학을 해서 졸업도 같이 하고 신대원도 같이 다닌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분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고 이미 성직자 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가톨릭 계통에서 수사로 계시다가 신학교에 오시게 된 경우였습니다.
신학교에는 워낙 특이한 경로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신학교에 온 학생들도 있지만 저만해도 삼수를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만 25살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넘는 분들도 있었고 별의별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사를 하다 오신 목사님은 유별나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 1, 2학년이 끝나면 영어와 독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3학년으로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은 도대체 시험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독어시험을 치를 때였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시험지가 배포되자마자 이내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독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시험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학년까지 쭉 같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시험 때만 되면 뭔가 두툼하게 담겨있는 편지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른 채 본인이 시험에 임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을 편지에 써서 과목별로 교수님들께 다 보낸 것이라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험을 보지 않고도 진급해서 대학과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편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학과정에서 생각해본다면 부조리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일입니다만,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님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원칙을 넘어서 참작할만한 어떠한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 지어 생각해봐야 할 점은 그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시험을 뛰어넘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시험을 뛰어넘은 사건을 비유로 하면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이처럼 뛰어넘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삶의 문제라는 시험이 제시되었을 때에 그것을 풀려고 몰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인생살이의 방법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시험지를 버리고 시험장을 떠나야만 합니다.
삶의 문제라는 시험이 다른 모든 시험과 다른 점은 바로 답을 적어야 할 사람이 출제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찾으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버리라고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이 돈 문제라는 시험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돈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돈과 밀착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제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중합니다. 그러는 동안 삶은 지속적으로 소비되어 갑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덴동산에서 발간된 사전이 있다면 문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태야 말로 무척 이상한 상황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증상이 삶의 문제에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삶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음을 생각해볼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 또한 문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삶의 문제를 만나면 으레 기도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의 대부분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불상에 절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나 드러나는 결과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설령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나의 바람과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응답을 무시하거나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배우자의 문제 등이 해결되기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세상과 밀착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못들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 정의와 공의대로 응답하신다면 심판과 멸망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더럽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밀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야 말로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개입하신다면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통해 세상과 밀착하여 더러움이 발생한 그 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감사하세요. 건강문제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원하는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감사하세요. 자녀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감사하세요. 즉사할 죄가 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사할 죄가 면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와서 세상과 밀착된 마음을 죽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에 밀착되어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 집착하지 않고 버리기로 결심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출제자는 답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밀착한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밀착된 상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제자이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문제를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내용의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벧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벧엘은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벧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선민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가나안 땅입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열두 개의 돌을 가져다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했던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후에는 사무엘의 사역지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장소들이 북 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선민들이 벧엘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을 때에는 십중팔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우상숭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곳들에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면 우상 대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선과 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외의 다른 대상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더럽게 여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한 악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또한 악입니다.

한편 본문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은 바로 마음에서 악을 없애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돈, 건강, 가족, 나라와 밀착되어 있을 때에는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돈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이게 바로 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악의 열매일 뿐입니다. 진짜 악은 바로 마음이 돈과 밀착된 상태입니다.

간단히 말해 악을 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문제를 예로 들어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한 것은 건강문제로 고민할 때에 좋은 약을 찾아다니지 말고 여호와께 와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과 밀착되어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답이 낫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그 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애를 쓴다고 해서 답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답은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든 죽든 해결해야 될 문제는 건강과 밀착된 마음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문제를 버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입니다.

본문 18~19절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날'이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에 연기가 자욱하니 산이 진동하고 옹기가마 연기 같이 피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던 것, 베드로가 참수를 기다리면서도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천사가 깨워서 감옥 문을 열고 길 밖으로 내보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겠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우상숭배자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어디까지나 돈 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와 같은 세상의 문제들과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기만을 간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나고 집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 물리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음이 사업에 밀착된 상태에서 사업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개입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아니라 사업과 마음이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오히려 삶에 어둠이 덮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날이 임한다면 오히려 사자라는 사업의 문제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새끼 잃은 어미 곰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문제로 인해 쓰러지지 않겠다고 벽을 짚었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던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의 기준에서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숱한 기도들이 모두 엄청난 죄였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 잘못된 기도들을 모두 못 들은 것으로 여기셨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와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갖게 되기만을 바라고 계시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그 역겹고 더러운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세상과 밀착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배는 본래 이와는 정반

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밀착된 마음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것이 예배입니다. 결코 세상과 밀착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여호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에 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즉사를 면할 자가 몇이나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야 말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마음의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못들은 것으로 여기고 계실 뿐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가 21~23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으며 오히려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럴 때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정의와 공의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밀착된 상태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예배당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는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까지 세상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목사님은 물론이고 교인들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밀착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예배당 건축이나 선교 사업과 같은 일일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마음과 밀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분을 동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결코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밀착을 유지할 때에 인생은 바야흐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문제 자체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은 결코 내게 있지 않으며 내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죄로 더러워진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은 것으로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세상과 밀착되어진 상태에서 답을 추구하는 대신에 문제 자체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진 답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의 답이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버리며 가장 올바른 답대로 행동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답만이 나타나고 표현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